



북한 기도회

2022년 8월 - 202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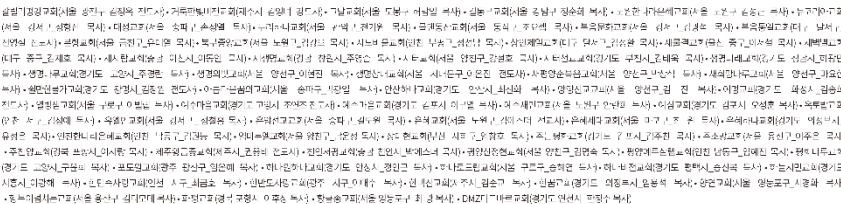
기도제목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탈북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탈북민들에게 심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봉쇄와 격리의 연속 속에서 외로움과 압박감으로 인한 우울증 증가가 탈북민들의 고독사 급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펜데믹 완화에 발맞춰 탈북민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더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수고하는 일선의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사역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2. 탈북민 교회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북한과 통일을 외치면서 정작 탈북민 사역에 대해서는 몇몇 개인의 희생에 의존한다면 안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탈북민들을 섬기고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북한의 비핵화 협상 참여에 따른 각종 경제협력 방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흥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큰 난항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4. 북한 주민들의 수해와 식량난으로 인한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난은 여전하고 아사자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안보실은 7월 25일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북한에 추가적 압박과 고통이 가해졌다"며 "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비로 인해 수해도 우려됩니다. 8월 15일 기준으로 평양시 보통강 구역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내리고 평안북도에는 2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9월에도 강력한 태풍들이 다가옴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난과 수해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여러 선교단체와 기독 NGO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5. 중국의 코로나 사태 해결과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0%에도 불구하고 제로 코로나(zero corona, 清零) 정책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국경개방을 원하지만 오히려 중국 측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이를 막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중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 완화는 북한선교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현지 체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의 누적된 어려움이 상당합니다. 중국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 또는 위드코로나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선교사, 사역자, 탈북자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 속히 원활하게 북한선교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6.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주민 통제와 반동사상문화법 등과 연계되어 강화된 단속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 적발 사례와 이로 인한 성도들의 안타까운 순교와 고난의 소식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가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또한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씨와 조선족 사역자들이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된 선교사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견디고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제목7. 북녘을 향한 라디오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라디오 사역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 당국의 대북방송에 대한 전파방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라디오 복음 방송이 북한에 잘 전달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북녘의 청취자들이 안전하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도록,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가 깨끗하게 북녘에 전달되도록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